

# 21년 국악방송 제1차 서면 시청자위원회 결과

'21. 5. 6.(목)/심의감사부

## □ 개요

- (목적) 방송의 공정성 제고 및 시청자의 권익 보호
- (개최방법)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상황에 따른 서면 위원회 진행
- (의견수렴 기간) 2021. 4. 23.(금) ~ 4. 30.(금)
- (의견수렴 방법) 전화 및 이메일을 통한 의견 취합

## □ 주요내용

- 2020년 주요 방송 내용 서면 보고
- 2021년 주요 방송 계획 서면 보고
  - 2021년 봄 프로그램 개편 관련 라디오 및 TV 편성 방향 보고
  - 주요 개편 내용 보고
  - 편성표 및 프로그램 기획서 보고
- 시청자위원 의견 서면 수렴
  - 주철환(위원장) 등 제3기 시청자위원 총 10명 전원 의견 제출

## □ 시청자위원 의견 세부내용

위원명	제시 의견
<p>주철환 (위원장)</p>	<p>&lt;라디오&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악의 보존 및 방송 활용을 위한 음원 데이터베이스화 및 영상아카이브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충성도 높은 청취자 한 사람, 한 사람을 DB로 구축하여 이분들이 진정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직접 들어보고 그분들이 원할 경우 프로그램제작에 여러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li> <li>- 실시간 메시징 및 콘텐츠 공유를 사용한 이른바 ‘<b>보이는 라디오 회의</b>’ 프로그램 <b>활성화</b>(ZOOM을 활용하여 행복을 줌, 희망을 줌 등으로 홍보)</li> </ul> <p>&lt;TV&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문제는 화제다!!</b> 유튜브에서 ‘화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전략 수립 및 실행</li> <li>- 국악을 소재로 한 <b>타임슬립드라마</b> 제안 (이를테면 고구려의 왕산악, 신라의 우륵, 조선의 박연이 동시에 등장하는)</li> <li>- 국악고등학교 학생, 동문, 교사를 주축으로 한 정규프로그램 제안</li> <li>- 외국인 100퍼센트로 심사위원단이 구성된 <b>글로벌 국악오디션</b> 제안</li> <li>- <b>대표진행자</b> 한 명을 집중적으로 내세워 국악방송의 존재감을 알릴 필요가 있음</li> </ul> <p>&lt;기타&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반적으로 콘텐츠(레퍼토리)의 우수성은 입증되었으니 국악방송의 정체성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확실한 <b>슈퍼콘텐츠(빅히트) 하나(진행자의 스타성 부각)</b>를 선택하거나 개발하여 집중적으로, 전략적으로 홍보하는 일이 과제로 남았음</li> <li>- 프로그램 숫자를 줄여서 인지도(인기도) 높은 프로그램을 1부, 2부, 3부 등으로 편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논의하기 바람</li> </ul>
<p>김희선 (부위원장)</p>	<p>&lt;라디오&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라디오 봄 개편은 큰 틀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임</li> <li>- ‘바투의 상사디아’ 등 대표 프로그램은 지속하는 것은 바람직함</li> <li>- ‘황윤기의 세계음악여행’ 시간이 소폭이나마 늘어난 것은 바람직함 기존의 세계의 전통음악을 코너로 지속하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음</li> <li>- 신설한 ‘글과 음악의 온도’는 문학과 음악의 만남이라는 고전적인 라디오 프로그램의 방식을 따르고 있다고 보여져 기대되는 프로그램임</li> <li>- 기존 ‘음악의 교차로’는 진행자에 따라 다소 방송 진행의 편차가 커서 불안정했는데 1인 진행자는 바람직한 편성으로 보임</li> <li>- ‘연구의 현장’과 ‘국악산책’은 대표적인 학술/감상 위주의 프로그램인데 이에 대한 <b>일반 시청자들의 반응을 모니터</b>해 볼 필요가 있음</li> </ul> <p>&lt;TV&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악방송의 기존 프로그램 중 &lt;국악아니&gt;의 종영은 아쉬운 점임. 국악방송 예능의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삼아 추후 예산확보를 통해 확장되기를 바람</li> <li>- <b>타 방송국, 타 기관과의 협력</b>은 현재 국악방송의 예산 상황과 제작환경으로 볼 때 피할 수 없는 차원에서 적절한 돌파구라고 판단됨</li> <li>- 해외 방송 등에서 방송 가능한 국악 장르 소개 다큐멘터리 제작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li> <li>- 추후 <b>트로트 등 오디션</b> 프로그램을 통해 대중에 알려진 국악인을 섭외하여 팬덤을 이</li> </ul>

	<p>끌어오는 것도 필요할 것임</p> <p>&lt;기타&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악방송의 <b>아카이브적 기능의 중요성</b>을 감안하여 과거 TV 프로그램(KBS, MBC)등을 입수하거나 방송국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함.</li> <li>- 구술프로젝트를 확대하여 방송에도 활용하고 후대의 자원으로 남겼으면 함</li> <li>- <b>국악방송 20주년의 홍보가 미흡</b>하다고 여겨짐. 국립국악원 70주년과 함께 양 기관의 협력이 아쉬움</li> </ul>
<p>곽은아</p>	<p>&lt;라디오&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라디오를 통해 일반인들이 국악에 대해 쉽게 알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 신설로 마니아 층부터 입문자 층까지 다양하게 유입될 수 있도록 <b>단계별 프로그램 설정</b>이 된 것 같아 긍정적임</li> <li>- 음악의 교차로 프로그램의 진행자를 1인으로 변경하여 프로그램의 느낌과 모습에서 통일성을 준 부분이 좋게 느껴짐</li> <li>- 광주, 대전, 충청 국악방송의 경우 <b>로컬프로그램을 유지</b>하는 부분이 좋음. 지역의 문화와 정보를 담아내는 프로그램들의 경우 그 지역에서 내려오는 설화나 지명과 얽힌 이야기, 동네별, 혹은 지역별 마을 사람들에게서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는 풍습이나 이와 관련한 이야기 등을 함께 소개하며 국악과 엮어도 흥미 있고 재미있을 것 같음</li> </ul> <p>&lt;TV&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로 인해 온택트 공연으로 급변화하는 추세에서 국악콘서트 ‘판’, 국악무대와 같은 양질의 공연을 안방에서 볼 수 있도록 <b>확대 편성</b>한 것이 시류에 잘 맞추어 움직임 개편이라 생각됨</li> <li>- 전체적으로 다양한 국악의 면모를 대중들에게 알릴 수 있는 구성으로 개편된 것 같아 긍정적임</li> </ul>
<p>금희조</p>	<p>&lt;라디오&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라디오 봄 개편에서 우리 음악에 대한 이해를 돕는 프로그램, 캠페인을 신설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엿보이는 점 높히 평가함. 모든 문화예술은 익숙하고 친근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즐기지만 어렵고 멀게 느껴지면 대중들의 지지를 받기가 어려운 것 같음. 최근 대중음악(ex. 이남치)등에서 국악을 새롭게 해석하여 인기를 얻고 있는 것 같음. 요즘 미디어 트렌드에 맞게,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와 융복합적 요소를 현 개편안에 반영하면 더 쉽게 대중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음. 개국 20주년 기념 프로그램도 기대가 되는 부분임. 대전국악방송의 SNS 플랫폼 활용도 좋은 아이디어라 생각됨</li> </ul> <p>&lt;TV&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로 어려운 중에도 훌륭한 TV 콘텐츠를 자체 제작한 부분은 매우 높은 성과라고 생각함. 특히, 유튜브와 페이스북 라이브를 이용하여 <b>비대면 문화 서비스를 선도</b>한 부분이 인상적임. 코로나 상황이 개선되더라도 문화의 디지털화는 세계적 트렌드임. 코로나를 계기로 국악방송이 <b>문화의 디지털화</b>에 앞장서는 모습이 긍정적임. 일방적 방송이 아니고, 특히 시청자를 화상으로 연결하여 비대면으로 참여 유도를 한 콘텐츠는 코로나 상황에 매우 효과적이었을 것으로 생각됨. 미래세대 및 뉴미디어 콘텐츠 부분은 페이스북, 유튜브 구독자 수와 조회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기대되는 부분임. 소셜 미디어에서 구독자 수에 가속도가 붙기 시작하면 훨씬 더 빨리 임팩트가 향상될 것으로 보임. <b>숏폼 형식의 엔터테인먼트 요소</b>가 가미된 임팩트 큰 영상이 계속 제작되기를 바램</li> </ul>

	<p>&lt;기타&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반적인 기관 운영 중 <b>국악방송의 사회적 공헌</b> 측면을 특히 높게 평가함. 코로나로 공연예술이 절망적인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공연 중계 온라인 촬영 및 중계 지원, 홍보, 수탁사업, 콘텐츠 제작, 온라인 보급 등은 전통예술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을 것으로 생각함</li> </ul>
김지영	<p>&lt;TV&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 방송(JTBC, TV조선 등)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 지원자 중 국악을 베이스로 하여 재능을 확대하는 사례들(김태연, 김다현 등)이 눈에 띄어. 특히 재능 있는 어린이들을 TV 프로그램을 통해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모연령층 또는 노년 시청자들에게는 주는 즐거움과 선호가 높은 것 같음. <b>국악영재들 발굴</b> 등을 통해 시청자에게는 흥미를 유발하고, 국악 대중화에 기여하는 프로그램이 기획되길 바램</li> <li>- ‘소리를 배우시다’는 예능적인 접근이 이뤄지면 좋겠음. 대중에게 친숙한 국악인, 유명인들이 참여해서 화제성이 있을 뿐 아니라 참여형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재미요소가 상당하다고 생각함. 특히 <b>스튜디오 세트 디자인</b>은 보다 화사한 공간으로 리디자인 될 필요가 있음</li> </ul> <p>&lt;기타&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 기관과의 업무협력체계를 구축하여 <b>협력사업을 추진</b>하는 것이 확대되기를 바램. 또한 국악 저변의 확대를 위한 연계 협력 홍보도 지속적으로 강화되길 기대함</li> <li>- 전통예술 보존을 위한 <b>음원을 DB화</b> 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평가됨. 사료로써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관리가 이뤄지고, 누구나 쉽게 DB를 접할 수 있도록 공개의 장이 확대되기를 바램</li> </ul>
김현	<p>&lt;라디오&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라디오 방송 개편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음</li> </ul> <p>&lt;TV&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대면 시대, 국악방송이 국악연주의 공급자와 소비자 사이의 소통 역할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함</li> <li>- 오프라인 뮤직 이벤트가 완전히 소멸한 상태에서, 지명도가 낮은 소규모 국악연주단들은 온에어 공연의 기회도 얻을 수 없는 상황임</li> <li>- 국악방송에서 이러한 국악인들의 공연 영상을 접수하여 소개하고, 연주단의 프로파일은 국악방송 홈페이지에서 얻을 수 있게 함으로써 <b>on-demand, online 국악 공연</b>을 촉진하는 방안을 제안함</li> <li>※ 활용 예시: 비대면 국제학술회의에서 연주단을 초청하여 온라인으로 국악 공연</li> </ul> <p>&lt;기타&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악방송의 데이터 <b>아카이브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향과 방법</b>에 관해 보다 전문적으로 논의할 기회가 마련되기를 바램</li> <li>- 음원 아카이브는 단순히 그 음악을 재생하여 즐기거나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음악을 보다 깊이 조사하고 탐구하려 할 때 더 큰 가치를 발휘함. 이 경우 음원 그 자체뿐 아니라, 연주자, 악기편성, 악보, 연주 환경, 연주 배경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기술한 <b>데이터가 함께 축적</b>될 때 후세에 남길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증대될 것임</li> </ul>
박선영	<p>&lt;라디오&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그램의 정체성과 특성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로운 신설 프로그램도 앞으로 기대가 됨. 다만 종영 프로그램들에 대한 <b>종영 이유나 판단 기준</b>을 현재 자료로는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은 아쉬움. (시청자위원들에게 부정적인 평가나 한계도 같이 공유해주시는 것이 의미 있는 평가와 피드백을 주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음)</li> <li>- (광주, 대전) 어려운 여건에도 로컬프로그램의 비율이 조금씩 늘어나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함</li> </ul> <p><b>&lt;TV&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악방송의 고유한 정체성과 목표를 지키면서, 시청자들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함</li> <li>- 타매체와 기관과의 협업 작업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앞으로도 확대되었으면 좋을 것 같음</li> </ul> <p><b>&lt;기타&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 서비스, 홍보체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에 대한 사업은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여겨짐. 앞으로도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해나가는 과정에 힘써 주시길 바람</li> <li>-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코로나 블루(우울증)’ 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음.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문화예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임. 이와 관련한 캠페인들을 통해서 음악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예술의 사회적 가치와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임. 이러한 <b>캠페인의 기획</b>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음</li> <li>- 국악방송의 중요한 역할이 <b>문화예술의 다양성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 지키는 것</b>에 있다고 생각함. 코로나로 인해 소규모 공연장, 공연팀(예술인)들이 심각한 생존의 위기를 겪고 있음. 이들과 공존할 수 있는 기획 프로그램을 만들어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음</li> <li>- 공영방송으로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이 더욱 중요하게 요구되는 요즘임. 기존의 방송이 주는 역할과 효능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b>공공적 가치를 확산</b>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해볼 필요가 있음</li> <li>- 시청자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모든 방송을 보는 것이 불가능하고 서면으로 자료를 보다 보니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어렵기도 함. <b>청취자 여론조사나</b> 애청자 좌담회 같은 것을 기획해서 의견들을 수렴해보는 것도 좋겠음</li> </ul>
<p>윤용근</p>	<p><b>&lt;라디오&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1년 라디오 봄 개편 방송은 큰 변화 없이 프로그램별 방송 시간 조정이 이루어진 것 같음. 고정 팬으로 듣고 있는 청취자들을 위해 프로그램을 너무 많이 자주 변경하는 것보다는 <b>꾸준히 지속되는 프로그램</b>도 중요하다고 생각함</li> <li>- 여기에 전통음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새롭게 신설한 ‘글과 음악의 온도’ 프로그램은 청취자들에게 우리 전통음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친숙하게 만들어 주는 좋은 프로그램으로 기대함</li> </ul> <p><b>&lt;TV&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악방송 TV는 영상시대에 다양한 전통 음악과 볼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아주 좋은 방송프로그램임. 특별히 비대면 시간이 길어지면서 영상을 통한 국악을 배우고 즐길 수 있는 시청자들이 많아질 것으로 기대함. <b>좀 더 쉽고 간단하게 배워 볼 수 있는 프로그램</b>들을 늘려가는 것도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함</li> </ul> <p><b>&lt;기타&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은 예산과 인력에도 불구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좋은 방송을 이어가는 노력에 감사를 포함</li> <li>- 계속해서 <b>다양한 음원 제작을 통한 모바일 유통 플랫폼 활용</b> 등 국내뿐 아니라, 유튜브 등을 통해 세계로 널리 전파되는 국악방송이 되길 기대함</li> </ul>
이재일	<p><b>&lt;라디오&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황인찬 시인이 진행하는 &lt;글과 음악의 온도&gt;는 신설 프로그램으로 주목받고 있음</li> <li>· 국악을 들려주면서 시도 낭독하는 형식인데 국악을 대중에게 좀 더 알리는 데 효과적인 프로그램으로 국악을 좋아하는 주 청취자와 대상층을 좀 더 넓히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li> </ul> <p><b>&lt;TV&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악방송이 전문채널로 성공하려면 <b>콘텐츠의 확장</b>을 통한 시청자와 대중의 이목을 끄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함</li> <li>· 국악방송이 타 방송채널보다 뛰어난 국악공연 프로그램(국악무대, 국악콘서트)은 시청자와 대중들이 선호하는 재미와 볼거리 가득한 콘텐츠면에서는 한계가 있음</li> <li>· 인기 음악프로 KBS &lt;유희열의 스케치북&gt;은 대중음악 공연을 소개하는 형식이지만 출연가수와 토크진행을 통해 재미와 볼거리를 제공하며 지루한 면을 줄이고 있음</li> <li>· 타 방송 음악프로의 선례를 통해 국악 프로그램의 예술적인 공연은 지금처럼 고품질 있게 보여주면서 장시간 프로그램을 시청하도록 일반적인 재미에 방점을 두고 시청자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기획력이 필요함</li> <li>· 음악전문채널 엠넷의 프로그램 중 기획력이 뛰어난 &lt;너의 목소리가 보여&gt;, &lt;킹덤 : 레전더리워&gt;는 재미적 요소와 볼거리를 보여주며 시청자를 장시간 동안 붙잡으며 시청률과 화제성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음</li> <li>· 결국 예술적인 공연을 장시간 보게 하려면 현장에서 공연을 보는 것처럼 제작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프로그램을 더욱 고급스럽게 포장하고 시청자가 지루하지 않게 공연의 재미적 요소(뒷얘기)를 보여줄 필요가 있음</li> <li>- 국악방송이 대중적 확산을 위해 제작하는 전문 콘텐츠도 일반적인 재미에 방점을 두고 시청자 시선을 붙잡도록 기획력과 구성력이 더욱 필요함</li> <li>· 국악을 소재로 한 다양한 형식의 다큐, 예능, 정보제공 프로그램은 열악한 제작 환경(제작비 부족, 출연자 섭외 어려움)에서 국악방송이 전문 콘텐츠 제작과 다양한 시청층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통해 일년여 만에 괄목할 만한 성과와 도약을 이루어냄</li> <li>·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발전하려면 국악방송 고정 시청층이 채널을 쉽게 변경하지 않게 지루한 장면을 줄이며 <b>재미와 볼거리</b> 있는 기획과 구성력이 필요함</li> <li>· 국악을 쉽게 배우는 &lt;소리를 배우시다&gt; 프로그램은 다양한 시청자층이 공감하고 국악방송만이 가진 국악 장르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우수 프로그램 사례임</li> <li>· 국악을 좋아하는 사람과 잘 모르는 사람 누구나 재미있게 시청하는 프로그램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제작되도록 프로그램을 더욱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음</li> <li>· 제작진의 노력과 기획력은 장차 시청자와 대중을 자연스럽게 국악방송 채널로 유입시켜 시청자층을 넓히고 국악 전문채널로 자리잡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li> </ul> <p><b>&lt;기타&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 방송사(MBN, JTBC)가 곧 선보일 국악예능 프로그램(조선판스타, 조선팝대전)은 국악 대중화와 저변을 확대하는 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li> <li>· 제작인력과 제작비 등 프로그램 제작환경과 여건이 타 방송사에 비해 부족하고 열악한 핸디캡을 극복하려면 국악방송도 MBN/JTBC의 <b>국악 오디션 프로그램</b>을 주목하고</li> </ul>

	<p>기회를 삼고 도약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 국민 국악 열풍이 일어나도록 기회를 잘 이용하여 선제적인 준비가 필요함</li> <li>· 크게는 다양한 방식(<b>협찬, 협업</b>)을 통한 색다른 국악 프로그램의 기획과 제작이며 작게는 타 방송사에 출연하는 국악인과 국악스타를 자사 프로그램에 출연시키는 전략을 통해 국악 대중화와 국악시장 저변확대를 이어가고 국악 열풍을 함께 만들어가는 전문채널이 되어야 함</li> <li>- 국악에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넘버원 채널로 자리매김하는 국악방송만의 포지셔닝 전략이 필요함</li> <li>· 지상파가 독점하는 방송환경에서 다채로운 케이블 방송이 피어나는 90년대 중반에 OCN은 영화채널인데도 ‘대한민국 넘버원 채널 OCN’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하루에도 주기적으로 수십번 광고를 노출을 통하여 OCN이 영화채널은 물론 방송채널에서 최고라는 인식을 시청자에게 심어준 사례가 있음</li> <li>· 영화스타, 한류스타를 자사 광고 모델로 활용하여 ‘대한민국 넘버원 채널 OCN’ 광고 슬로건을 몇 년 동안 끊임없이 캠페인 활동을 지속함</li> <li>· 국악방송 시청자들에게 국악방송이 국악과 전통에서는 누구도 넘볼수 없는 <b>최고의 채널</b>이라는 핵심 메시지를 개발하여 지속적인 캠페인을 이어나가야 함</li> <li>· TV광고, 온라인광고, CM송, 공모전 등 할 수 있는 홍보활동은 전부 동원하여 <b>브랜드 이미지</b>를 키우는 포지셔닝 전략이 필요함</li> <li>- 안건 자료 &lt;누리소통망을 통한 홍보 강화&gt; 방안에서 시청자 확보를 위한 유튜브 생중계 확대와 네이버TV 콘텐츠의 확대 홍보강화는 훌륭한 홍보전략이라고 생각됨</li> <li>· 여기에서 한발울 더 나아가 <b>네이버TV 생중계</b>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li> <li>· 네이버TV 생중계는 네이버 &lt;공연전시관&gt;을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공연 생중계를 알려주는 무료 배너광고를 통해 엄청난 홍보 효과를 거둘 수 있음</li> <li>· 네이버TV 공연실황을 생중계로 홍보해주는 네이버 &lt;공연전시관&gt; 무료 배너광고를 통해 국악방송 네이버TV 생중계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전략은 좋은 홍보전략임</li> <li>· 이를 통해 국악방송 네이버TV 구독자(174명)를 유튜브(3.09만 명)만큼 올리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됨</li> </ul>
<p>천재현</p>	<p>&lt;라디오&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설된 ‘글과 음악의 온도’ 프로그램에 대해 기대를 가져봄. 국악, 음악에 대한 소식과 정보를 나누는 많은 프로그램들 사이에서 새로운 기운 - 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음. 국악이라는 주제에 치이지 않고 시인의 시선이 잘 드러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문학적으로 풍성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음</li> <li>- 국악방송은 지금도 많은 고민 속에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함. 국악을 다루는 다양한 시선을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짐. 그런데 ‘국악’이라는 주제가 커서 그런지 결과적으로 획기적이거나 신선하게 느껴지는 것이 많지 않은 것 같음. <b>과감함을 확실히 드러내는 프로그램</b>이 있었으면 좋겠음</li> </ul> <p>&lt;TV&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되어있는 핵심 프로그램을 볼 때 ‘국악’에 많이 집중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듦. ‘전통문화예술을 아우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작’ 하겠다는 슬로건이 좋아 보임. 그런데 그 하위에 제안된 프로그램은 <b>대체로 국악에 집중</b>하고 있는 것 같음. 전통을 아우르는 프로그램은 이미 있고 그 균형 맞추고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공연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아니라면 국악을 전통이라는 범주로 넓혀 시청자들과 공감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국악의 외연을 넓히는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함</li> </ul>

<기타>

- 트로트 뒤를 이어 전통음악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오디션 프로그램**을 몇 개의 방송사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음. 그 프로그램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국악이라는 장르의 환경이 어떻게 달라질지 많이 궁금함. 이 상황을 바라보는 넉넉한 주인이 되었으면 좋겠음
- 작은 경험이지만 종편, 유튜브 등 개인방송이 발달하면서 프로그램의 구성과 진행이 많이 과감하고 자극적으로 되어가고 있음. 그에 비하여 국악방송의 라디오와 티비 프로그램은 **운영과 내용이 상대적으로 보수적**이라는 느낌이 있음. 개성과 변화가 뚜렷한 지금을 살아내는 국악방송의 전략은 무엇일지 궁금함

## 참 고

## 제3기 시청자위원 명단

분야	직능	성명	주요약력
방송정책	방송, 미디어정책	금희조	성균관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장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방송콘텐츠	국악이론	김희선 (부위원장)	前 국립국악원 국악연구실장 국민대 교양학부 교수
	국악실기	천재현	정가악회 대표
	문화재	김현	한국학중앙연구원 인문정보학 교수
	대중문화	주철환 (위원장)	아주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작가, 프로듀서, 노래채집가
콘텐츠 유통	마케팅 전략	이재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획조정부
교육	전통예술교육	곽은아	이화여대 한국음악과 교수
법조	변호사	윤용근	법무법인 엘플러스 대표변호사 (저작권 전문)
소외계층	사회소외계층	김지영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경영지원팀장
시민단체	시민단체	박선영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